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 연구*

이 소 연**

1. 서론
2. 표준RMS
 - 1) 개발과 보급
 - 2) 선행연구
3. 조사방법과 범위
4. 활용현황
 - 1) 인수
 - 2) 보존
 - 3) 평가
 - 4) 이관
 - 5) 기준관리
 - 6) 접근 및 감사추적
 - 7) 검색 활용
 - 8) 시스템관리
 - 9) 공개관리
 - 10) 종합
5. 결론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oyeon@duksung.ac.kr). 주요 논저: 「전자 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투고일: 2014년 12월 18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0일.

[국문초록]

이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수, 보존, 평가, 이관, 기준관리, 접근과 감사추적, 검색활용, 공개관리 등 9개 대기능에 속한 240개 세부 기능별 활용정도를 묻는 설문도구를 구성하였다. 중앙부처나 광역교육청,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두 곳의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01개 기관 중 65곳이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63.73%였다. 그동안 표준RMS에 대해서는 ‘불편해서 쓸 수가 없다’는 생산기관 전문요원의 입장과 ‘잘 쓴다고 하는 곳도 꽤 있다’는 기록원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처음으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확인한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는 표준RMS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표준RMS, 기록관리시스템, RMS, 인수, 보존, 평가, 이관, 기준관리, 접근, 감사추적, 검색활용, 공개관리

1. 서론

이 연구는 필자가 2011년에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발표한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분석’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우리 현장과 실무현황을 파악하는 노력 없이, 국내외 법제, 표준 등의 문헌에 담긴 내용을 동어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야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중앙부처에 대거 배치되고 6년이 흐른 그 시점까지, 해외 문헌으로부터 얻은 당위론적 내용과 우리 현장실무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표준RMS만 하더라도 도입 후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기능성이나 이용편이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는 것이 전자기록 연구자로서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마침 2012년에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맡게 된 ‘디지털보존 세미나(봄)와 ‘전자기록관리연구’(가을) 강의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후 표준RMS로 표기)을 다루게 되었다. 애초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이용자 연구기법을 도입하여 기록이용자 연구의 일환으로 표준RMS의 이용편이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표준RMS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이용편이성에서 기능성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였다. 종강 후에도 연구모임으로 이어지며 공동작업한 결과, 2013년 여름에 각각 대기능 중 하나에 초점을 둔 7편의 실증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초기의 계획은 일단 세부 기능 연구들이 나온 후에, 필자가 전반적인 표준RMS의 보급과 유지 전략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곱 편의 연구 결과, 무엇보다 먼저 전반적인 기능 활용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활용 현황조사〉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여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중앙,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기관유형별로 표집한 연구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가진 국가기록원의 일부 연구사들과의 면담에서 일부를 표집하기보다는 어떤 유형을 대상으로든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표준RMS를 쓰지 않는다는 기관도 있겠지만, 잘 쓰고 있다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었다. 생산기관과 국가기록원과의 생산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전수조사이어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용현황에 초점을 두어 중앙, 광역 등 유형별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 설문조사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듯 3년에 걸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를 정련한 결과, 표준RMS의 활용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중앙부처나 광역교육청,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두 곳의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로 범위를 좁혔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240개에 달하는 표준RMS의 세부기능의 활용현황과 개선제안을 담은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내용을 모두 한 편의 학술지 논문에 담기에는 지면이 충분하지 않아, 여기서는 활용현황에 관련된 데이터의 빈도분석 결과만을 다루고자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 기능의 구현 및 활용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제안은 후속논문¹⁾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다.

2. 표준RMS

1) 개발과 보급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RMS: Records Management System)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처리과로부터의 기록물 인수, 그리고 기록관에서의 보존, 평가, 이관, 접근과 검색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록물관리 법령 및 표준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각급 기관이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이다.²⁾

1) 이소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개선전략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권 1호, 2015(투고 예정).

2)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꼭 알아야 할 100문 100답』, 국가기록원, 2014.

표준RMS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무료로 보급된다. 그러나 (1) 아카이브 스토리지와 PDF 변환서버, 검색엔진과 레포팅 툴, 대용량 송수신기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2) 자료관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이관하려면 기관 사정에 따라 3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2007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말 현재 707개 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부처 204기관(95.3%), 광역시도 17기관(100%), 시군구청 162기관(70.7%), 교육청 194기관(100%), 121곳의 군기관(97.5%), 그리고 국공립대 9개교(18%)가 도입하였다.³⁾기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3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이미 2,000억 이상이 투자된 상황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이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표준RMS 개발과정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기록관리 업무절차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나서 수작업에서 시스템 환경으로 전환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표준적 업무절차가 미처 정련되기도 전에 관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배치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아직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도 전에, 생산현황보고에서 평가심의까지의 업무를 한 주기 다 완료하기도 전에 설계된 시스템이다. 심지어 경험이 부족한 채로인 생산기관 기록관리 전문요원들조차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2007년 첫 보급 이후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와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시스템을 계속 보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산환경이 여러 번 환골탈태하였으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스템을 기관마다 수억 원을 들여 도입하는 일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국가기록원 뿐 아니라 현장이나 학계가 그 책임을 망기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그토

3) 위의 글, 24쪽.

록 많은 비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준RMS의 기능성이나 이용편이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이제까지 발표된 표준RMS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종이기록이든 전자기록이든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다룬 연구가 될 것이다. 우선 전통적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연구⁴⁾로는, 자료관시스템 표준을 확장하여 대학기록물관리시스템 모형을 제안한 이아현의 연구나, 조계종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모형을 제안한 광정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동헌 등은 국방연구소의 시청각기록 관리시스템 사례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을 다룬 연구⁵⁾로는 자료관시스템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김자경과 이소연의 연구나,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의 기록관리(RM)를 비교하고, OASIS 참조모형, 미 국방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VERS와 Moreq 등을 간략히 소개한 박은경의 연구, 그리고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 김용의 연구가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라 표준

4) 이아현, 「대학기록물관리시스템 모델링(Modeling)을 위한 기초 연구」, 『기록학연구』 제9호, 2004, 164~189쪽; 광정, 「조계종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1호, 2005, 143~179쪽; 신동헌, 정세영, 김선현, 「시청각(사진/동영상)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2009, 33~50쪽.

5) 김자경, 이소연,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설계표준의 기능요건 분석: ISO 15489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4, 227~250쪽; 박은경,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System Design: Trends and Vis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5, 65~77쪽; 김용,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1호, 2007, 61~82쪽.

RMS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광정⁶⁾은 국가기록원이 2005년에 수행한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사업을 검토하면서 표준RMS 등을 다루었다. 송병호⁷⁾는 기록관리법 공포 후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기록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국가기록원의 ISP 사업이 기록관리 업무재설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충분한 개념화 작업이 없이 관련 사업이 개별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지훈 등⁸⁾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표준RMS를 다룬 석사학위 논문 세 편도 특기할 만 하다. 손성근⁹⁾은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양희¹⁰⁾는 통계 기능에 초점을 두어 표준RMS를 다루었다. 박민수¹¹⁾는 신뢰성과 효율성, 사용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표준RMS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는데, 모든 기능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오류 파악과 수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세 번째 범주는 표준RMS의 대기능 각각에 대한 기능요건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능성을 평가한 7편의 논문¹²⁾이다. 정상희는 기준관리 기능을, 박종연은

-
- 6) 광정, 「행정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 분석」, 『기록학연구』 제14권, 2006, 153~190쪽.
 - 7) 송병호,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제21권, 2009, 385~411쪽.
 - 8) 임지훈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4, 153~179쪽.
 - 9) 손성근, 『정부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미간행).
 - 10) 김양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기능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미간행).
 - 11) 박민수,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요건에 대한 사용자 평가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미간행).
 - 12) 정상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기준관리’ 기능 및 이용 평가」,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189~237쪽; 박종연,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인수 기능 평가: 연계인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239~271쪽; 이경남, 「표준 기

인수 기능을, 이경남은 검색 기능을, 박민영은 접근관리 기능을, 현문수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을 평가하였다. 이보람은 표준RMS를 활용한 전자기록 평가폐기 현황을 조사하였고, 황진현은 생산현황통보에 주목하였으나 연구의 초점을 그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RMS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표준RMS에 시사점을 갖는 내용을 담은 최근의 실증연구들¹³⁾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 본 설문원의 연구는 표준RMS에서 분류체계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업무관리시스템, 표준RMS와 CAMS 간 보존기간 동기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김지현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인 공기업에서의 기록관리를 연구하였는데, 8개 기관 중 표준RMS를 도입한 기관은 5개 기관이라고 보고 하였다.¹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과 환경을 연구한 정하영과 강순애는 전산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록관리시스템 검색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273~305쪽; 박민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평가: 접근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38호, 2013, 3~35쪽; 현문수,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문서보존포맷변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3, 115~147쪽; 이보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제38호, 2013, 37~73쪽; 황진현, 「공공기관의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145~1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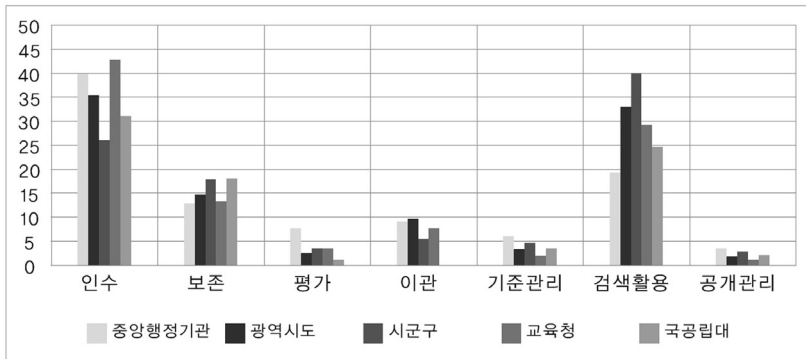
- 13) 설문원,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3, 23~51쪽; 김지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3, 73~97쪽; 정하영, 강순애,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3, 57~85쪽; 현문수, 「공공 전자기록의 이관 현황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4, 33~54쪽.
- 14) 한 곳은 도입 예정, 또 한 곳은 지방 이전 후 도입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마지막 한 곳은 '도입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국가기록원에서 직접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도입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류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80쪽.

지적하였다.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전산담당자가 기록관리시스템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신전자문서시스템과 표준RMS, 그리고 조직 내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의 연계 문제 등도 제기하였다. 현문수는 표준RMS와 CAMS 사이의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의 분산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준RMS의 활용현황을 조사한 것으로는 2013년 말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정보화과가 수행한 ‘표준RMS 도입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¹⁵⁾가 유일하다.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전자기록 본격 이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표준RMS를 도입한 825개 기관 중 756개 기관이 조사에 응답(91.6%)하였다고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이 조사결과에 따른 표준RMS의 대기능별 사용빈도(평균백분율)를 보여준다.

<그림 1> 표준RMS 기능별 사용빈도(평균백분율)



* 출처 : 2013. 표준RMS 도입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 (미간행),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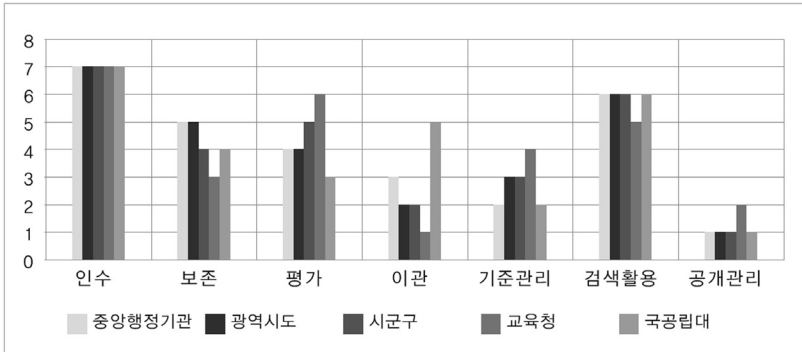
15) 국가기록원, 「표준RMS 도입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 2013(미간행).

국가기록원 조사에서는 총 100%를 기준으로 하여 인수, 보존, 평가, 이관, 기준관리, 검색활동, 공개관리 등 7개 대기능별 활용 정도를 배분 하도록 응답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서식에 표기된 작성지침은 ‘RMS의 주요 7개 기능별로 각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빈도를 추정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 보이는 중앙부처의 활용정도를 평균치로 환산하여 보면, 인수 기능을 활용하는 정도가 40%, 보존이 약 13%, 평가가 약 3%, 이관이 약 9%, 기준관리가 약 6%, 검색활용이 약 19%, 공개관리가 약 3% 정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¹⁶⁾ 위의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수>검색>보존>이관>기준관리>평가>공개 관리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기록원 조사결과에서는 인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검색기능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 차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록원 조사는 대기능을 기본단위로 해서 상대적인 활용 비중을 조사한 데 비해, 이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세부기능별 활용정도를 물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응답하였으나, 기록원 조사는 전산담당자가 조사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검색보다 인수기능을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이 당연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¹⁷⁾ 한편 아래의 <그림 2>는 기능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인다.

16) 이 그래프 이외에는 데이터의 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17) 임희연, 한국기록학회 제101회 월례발표회 토론, 2014.

〈그림 2〉 표준RMS 기능별 중요도(1~7점)



* 출처 : 2013. 표준RMS 도입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 (미간행), 19쪽.

기능별 중요도는 ‘기록관리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후 1~7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라는 지침에 따른 조사결과인데 인수, 검색활용, 평가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요도의 순서는 인수)검색)평가)보존)기준관리)이관)검색결과였다.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기관에서보다 이관의 중요도가 두드러지게 높아 보이는데 이는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과 생산부서에서 기록관으로의 ‘이관(표준RMS에서는 인수)’을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 짐작된다. 평가 기능이 현재의 활용정도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에 주목할 만하다.

3. 조사방법과 범위

표준RMS 활용현황 조사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도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부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소기능별 활용 현황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국가기록원의 표준RMS 매뉴얼(2014)을 기준

으로 하여 9개 대기능, 33개 중기능 아래 240개 소기능을 각각 하나의 설문 문항으로 하였다. 활용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① 열어 본 적 없다, ② 열어보긴 했으나 사용해 본 적 없다, ③ 사용해 보긴 했으나 잘 안되어 쓰지 않는다, ④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쓰고는 있다, ⑤ 대체로 무리 없이 잘 쓰고 있다 등 다섯 가지를 적용하였다. 기능 및 이용편이성에 관련된 제안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도 추가하였다.

설문도구의 2부는 처리과 직원의 활용현황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3부는 표준RMS의 도입과 유지, 기관유형, 전자기록생산 시스템 유형, 표준RMS의 총괄 관리 책임 및 세부 관리책임,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준RMS 활용현황 조사를 위해, 중앙부처(50), 교육청(18), 광역자치단체(22), 그리고 두 곳의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32) 등 123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2014년 10월 20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 중 전송실패, 휴직, 최근 인력교체, 표준RMS 미도입 또는 2개월 이내 최근 도입 등의 사유로 22곳을 제외하고 확정된 101명을 대상으로 문자와 전화로 응답을 독려한 끝에 11월 21일까지 65명이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63.73%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37명 중 24명(64.9%), 교육청이 17곳 중 8명(47%), 광역단체가 15곳 중 10명(66.7%), 그리고 기초단체가 23명(71.9%)이 응답하였다. 이 중 최근 도입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던 기관 2부와 응답내용이 부실했던 1부를 제외하고 62부를 분석하였다.

이메일과 문자, 전화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선 조사시기가 문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이었던 10월과 11월은 학위논문 등 다른 많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행정감사, 기관감사와 기록관리 지도점검, 연간 업무 마감, 내년 계획과 예산 수립 등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지도점검으로 이 기간 동안 거의 사무실에 있지 않아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보안상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인터넷망에서는 워드파일 작성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응답자 중 6명은 외부망을 통해 받은 이메일의 첨부파일인 설문지를 인쇄해서 수기로 작성한 후 스캔하여 전송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PDF 파일로 보내주었다. 세 번째는 설문지의 분량과 복잡성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240개 세부기능의 목록을 포함하느라 설문지 분량이 16쪽에 달해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반응이었다.

4. 활용현황

설문조사 데이터는 Excel로 코딩하고 SPSS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유효응답은 62건이었으나, 간혹 응답 대신 비고 칸에 ‘해당 없음’이라는 설명이 부기된 경우가 있었다. 분기별 패치가 반영되지 않아 화면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거나, 메뉴관리에서 비활성화한 기능인 경우로 짐작되었다. 설문지 길이가 길고 항목수가 많아서인지, 코딩 과정에서 소기능이 아니라 중기능 단위로 동일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인수나 보존에 비해 특히 설문지 뒷부분인 시스템관리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분석은 5개 척도에 따른 응답빈도를 분석한 후, 그리고 5개 척도를 ‘미사용’, ‘실패’, 그리고 ‘사용’의 3개 척도로 조정하여 재코딩¹⁸⁾한 후 재

18) 다섯 가지 척도 중, ‘열어 본 적 없다’와 ‘열어보긴 했으나 사용해 본 적 없다’를 ‘미사용’으로, ‘사용해 보긴 했으나 잘 안되어 쓰지 않는다’를 ‘실패’로, 그리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쓰고는 있다’와 ‘대체로 무리 없이 잘 쓰고 있다’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재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1) 인수

인수는 각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을 표준RMS로 넘겨받는 기능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로부터 인수 기능이 표준RMS의 9가지 대기능 중 검색 활용에 이어 가장 높은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 기록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인수하는 연계인수와, 처리과에 누적된 중 이기록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등록인수 등 두 가지 중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 1>은 인수 기능의 중기능과 중소기능, 그리고 소기능의 구조와 함께 각 기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의 수를 ()안에 표기하여 보이고 있다.

<표 1> 인수

중기능	중소기능	소기능
연계인수	연계인수	인수일정수립(20), 접수처리(33), 검수처리(34), 인수현황(33), 미인수현황(23)
	생산현황접수	전자문서시스템 생산접수(27), 전자문서시스템접수현황(26)
	생산현황통보	소속기록관생산현황접수(10), 소속기록관포함생산통보(9), 소속 기록관포함생산현황통보현황(9), 생산현황통보(36), 생산현황통보서식(28), 생산현황통보현황(31), 생산현황통보접수결과(25), 생산현황통보인수결과(24), 생산현황통보모니터링(17)
등록인수	기록물등록	등록(19), 검수(18), 등록현황(18)
	기록물일괄등록	기록관리일괄등록(12), 행정DB일괄등록(18)
	정부간행물관리(1)	
	행정박물관리	행정박물등록관리(0), 이관대상관리(1)
	비전자기록물인수(9)	

연계인수는 다시 연계인수와 생산현황접수, 생산현황통보의 세 가지

‘사용’으로 묶어 재코딩하였다.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계인수 중소기업에 속한 다섯 가지 소기능 중 인수일정수립과 미인수 현황은 1/3 정도의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접수처리와 검수처리, 그리고 인수현황은 절반을 넘는 기관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생산현황접수 중소기업을 구성하는 전자문서시스템 생산접수와 전자문서시스템접수현황 소기능의 경우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기관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추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그리고 광역 교육청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12곳만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산현황통보 중소기업에 포함된 9개 소기능 중 세 가지는 소속기록관의 생산현황 접수와 통보, 그리고 현황 확인을 위한 기능으로 대체로 10기관 이하가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지의 비교란에 소속기록관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기해 준 곳이 13곳이었다. 생산현황통보(36), 생산현황통보서식(28), 생산현황통보현황(31), 생산현황통보접수결과(25), 생산현황통보접수결과(25), 생산현황통보인수결과(10), 생산현황통보모니터링(17)은 240개 소기능 중 사용실패로 응답한 비율¹⁹⁾이 가장 높은 기능들이었다.

등록인수 중기능은 다섯 가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인 기록물등록 중소기업 중 등록, 검수, 등록현황 소기능을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19, 18, 18곳이었다. 두 번째 기록물 일괄등록 중소기업은 기록관리일괄등록과 행정DB일괄등록 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2곳과 18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 중소기업인 정부간행물관리는 단 한 곳만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네 번째 중소기업인 행정박물관리도 사용율이 매우 낮아 행정박물등록관리 소기능은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없었고, 이관대상관리 소기능만 단 한 곳이 사용 중

19) 각각 9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이 '사용해 보긴 했으나 잘 안되어 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2013년 표준RMS 도입운영 현황조사에서의 행정박물과 간행물 등록기능은 일부만 사용한다는 결과²⁰⁾와 유사하다. 국가기록원 보고서에서는 사용이 미진한 이유를 인식 부족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활용현황 조사에서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산부터 납본까지 처리과가 다 하고 있으므로 기록관에서 입력하는 것이 무리’이며 ‘온나라에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부기해 준 응답자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별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비전자기록물인수 증소기능의 경우 9개 기관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 보존

보존은 표준RMS가 보관하는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포맷관리, 기록정리, 바이러스검사, 기록물건정리(비전자), 서고관리, 디지털변환, 매체수록, RFID 등 8개 증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보존

증기능	증소기능	소기능
포맷관리	문서보존포맷변환	생신부서별변환(17), 기록철별변환(23), 포맷변환현황(23)
	장기보존포맷변환	생신부서별변환(7), 기록물철별변환(9), 포맷변환현황(10)
	포맷변환모니터링(14)	
기록정리	정리기술(3)	
	웹손기록정리(0)	
	비전자편철(2)	
바이러스검사	검사현황(6)	
	기록물철별검사(5)	
	검사현황(4)	
기록물건정리 (비전자)	세부유형등록(4)	
	세부유형등록현황(4)	
	건제목변경(4)	

20) 국가기록원, 앞의 글, 2013.

서고관리	서기배치	관리대상총괄표(12), 서고관리번호부여(특별)(14), 서고관리번호부여(일반)(15), 리벨인쇄(7), 서기배치(14), 서기배치(재배치)(12), 보존상자편성(재편성)(13), 서고/서기등록(15), 서기배치현황(13)
	정수점검	계획수립(3), 점검결과등록(3), 점검현황(3)
	반출/반입	열람반출(1), 반출서작성(1), 반입서작성(1), 반출현황(2), 반입현황(2)
디지털변환	총괄표(3)	
	대상선정(3)	
	스캐닝(3)	
	스캐닝검사(3)	
매체수록	광디스크수록	대상현황(1), 대상생성(1), 계획수립(1), 수록파일생성(1), 수록검사(1), 광디스크서기배치(1), 광디스크서기등록(1), 광디스크현황(1)
	M/F촬영	M/F대상선정(0), M/F촬영계획서(0), M/F촬영등록(0), M/F복제(0), M/F서기배치(0), M/F서고등록(0), M/F현황(0)
	보존매체정수점검	계획수립(0), 점검결과등록(0), 점검현황(0)
	보존매체관리	보존매체파기(0), 수록대상정리(0)
RFID관리	RFID관리	태그프린터등록(3), 고정형리더기등록(3)
	RFID태그발행	기록물철태그발행(3), RFID태그발행현황(3)

포맷관리 중기능의 문서보존포맷변환 중소기능의 경우 기록물철별 변환과 포맷변환현황 소기능을 사용하는 곳은 23기관이었고 생산부서별 변환 소기능을 사용하는 곳은 17곳이었다. 전자기록 본격 이관대비를 목적으로 수행된 국가기록원의 표준RMS 도입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관 대상 기관 중 국토부, 문체부, 산통부, 소방청 등만 변환을 진행하였고, 변환 대상 기록을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무한 기관이 다수 있어 집중감독과 독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기능개선 후 불편한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비교란에 부기한 기관이 있었다. 장기보존포맷변환 중소기능을 구성하는 생산부서별 변환, 기록물철변환, 포맷변환현황 소기능은 각각 7곳, 9곳, 10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장기보존포맷변환과 관련하여 ‘2015 이관예정 준비 작업중’(중앙), ‘2014년 하반기 적용’(중앙), ‘시스템 업데이트 중’(중앙),

‘국가기록원 오류점검중’(중앙), ‘기록원 테스트 중’(중앙), ‘시범기관 제외 하고 사용보류 중’(중앙), ‘이관대상 기관 아님’(중앙), ‘중영구기록물관리 기관 이관 안해 미사용’(광역)과 같이 비고란에 부기한 응답이 많았다.

기록정리 중기능의 정리기술과 비전자편철 소기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3곳과 2곳이었다. 또 훼손기록 소기능을 사용하는 기관은 없었다. 이렇게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기관의 전문요원이 비전자기록의 정리기술과 편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바이러스 검사 중기능은 검사현황, 기록물철별검사, 작업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RMS 매뉴얼에는 검사현황과 작업이력이 모두 검사현황으로 표기되어 있고 ‘인수기록물 중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내역을 모니터링’이라는 동일한 설명이 달려 있다. 검사현황은 생산년도와 보존기간으로 바이러스 검사 대상 기록을 조회하는 기능과, 철, 건, 원문, PDF의 전체건수와 정상 및 감염건수를 조회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작업내역은 검사일자별로 조회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검사현황은 6곳, 기록물철별검사는 5곳, 작업이력은 4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록물건정리(비전자) 중기능은 세부유형등록, 세부유형등록현황, 건 제목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4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서고관리 중기능은 세 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인 서가배치에는 서고관리번호부여와 라벨인쇄, 보존상자편성 등 9개 소기능에 속해 있었고 대체로 12곳에서 15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수점검 중소기능의 세 가지 소기능을 모두 사용하는 기관은 3곳이었다. 반입반출 중소기능의 다섯 가지 소기능을 사용하는 곳은 1~2곳 정도였다.

디지털변환 중기능의 네 가지 중소기능도 모두 3곳의 기관만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체수록 중기능의 광디스크수록은 단 한 곳, 그리고 M/F촬영, 보존매체정수점검과 보존매체관리는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없었다.

RFID관리 중기능의 네가지 소기능은 모두 3곳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3) 평가

평가 기능은 보유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열람범위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공개재분류, 접근범위재분류와 평가폐기 중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인수와 검색활용에 이어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서도 공개재분류 기능에 비해 접근범위 재분류와 평가폐기 기능의 사용율은 저조하였다.

〈표 3〉 평가

중기능	중소기능	소기능
공개재분류	대상현황	대상현황(19), 5년주기 대상선정(17)
	대상선정	대상선정(5년주기, 이관)(19), 대상선정(공개청구, 오분류)(17), 처리부서지정(16)
	의견등록	처리부서의견등록(12), 전문요원의견등록(12), 의견일괄등록(14)
	결과반영	(14)
	공개재분류현황	(14)
접근범위재분류	대상현황	(7)
	대상선정	기록관선정(7), 처리과선정(7), 처리부서지정(7)
	의견등록	처리부서의견등록(5), 전문요원의견등록(6), 의견일괄등록(5)
	결과반영	(5)
	접근범위재분류현황	(3)
평가폐기	대상현황	대상현황(4), 평가폐기 대상생성(4)
	대상선정	대상선정(4), 처리부서지정(5)
	의견등록	처리부서의견등록(5), 전문요원의견등록(5)
	평가심의	심의서작성(6), 심의결과등록(5), 의견일괄등록(4)
	대체보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견등록(0)
	결과반영	(3)
	폐기집행	폐기처리(2), 전자파일삭제(1)
폐기현황	(1)	

공개재분류 중기능은 대상현황, 대상선정, 의견등록, 결과반영과 공개재분류현황의 다섯 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선정에 관련된 기능이 5년주기와 이관, 공개청구, 오분류 정정을 위한 공개재분류가 두 가지씩 묶여 있어 이 중 하나만 사용하는 기관들이 응답하기가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각 기능 별로 12곳에서 19곳의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공개재분류를 다른 기능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비교란에 부기한 응답자도 있었다.

접근범위재분류 중기능도 공개재분류와 유사하게 대상현황, 대상선정, 의견등록, 결과반영과 공개재분류현황의 다섯 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기능별로 3곳에서 7곳의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폐기 중기능은 대상현황, 대상선정, 의견등록, 평가심의, 대체보존, 결과반영, 폐기집행, 폐기현황 등 8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심의서 작성의 사용율이 가장 높았고(6개 기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견등록 기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없었다.

4) 이관

이관은 각급기관의 중요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본격이관을 앞두고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관, 기관간 인계, 기관간 인수, 공동형연계인수 등 4가지 중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이관

중기능	소기능	소기능
이관	이관요청목록접수(6)	
	이관목록작성	이관대상선정(8), 조기이관대상 선정(5), 이관목록 통보(9)
	확정목록접수(6)	
	이관처리	이관대상 검수(7), 이관처리(6), 이관처리접수결과(7), 이관처리인수결과(6), 전자파일 삭제(1)
이관현황(5)		
기관간 인계	기록물인계	인계계획등록(5), 인계대상선정(5), 인계처리(5), 전자파일 삭제(1), 인계현황(3)
기관간 인수	기록물인수	인수계획등록(2), 접수처리(2), 검수처리(2), 처리부서지정(2), 인수현황(2)
공동형 연계인수	기록물인계	인수계획등록(0), 인계대상선정(0), 인계처리(0)
	기록물인수(1)	

이관 중기능에 속한 소기능 중 가장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이관목록작성 중소기능의 이관대상목록통보로 9곳이 사용 중이었다. 이 중 광역 1곳과 교육청 1곳은 처리부서로부터의 이관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며, 7곳은 중앙부처였다. 반면 이관 후 전자파일 삭제 소기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1곳이었으나 광역단체에서 연계인수 후 삭제한 경우와 혼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관간 인계와 기관간 인수 중기능은 ‘기관 간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간 업무인계(또는 인수)가 발생시 인계(또는 인수)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인계(또는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이다. 인계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기관(5곳)에 비해 인수 기능을 사용한다는 기관(2곳)의 수가 작았다. 인계 후 전자파일을 삭제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중앙부처 한 곳이었다.

공동형 연계인수 중기능은 교육청처럼 공동형으로 표준RMS를 설치한 기관에서 조직개편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를 위한 것이다. 기록물 인수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한 곳이 있었고 인계 관련 소기능

세 가지는 모두 사용한다는 기관이 없었다.

5) 기준관리

기준관리는 기록분류체계의 기준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기준정보 등 세 가지 중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다섯 곳(중앙 3, 광역 1, 기초 1)이 관리기준표와 분류기준표 관련 기능을 모두 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점이 특기할 만 하다.

〈표 5〉 기준관리

중기능	중소기능	소기능
관리기준표	보존기간관리	기록관 설정(28), 기록원 신청(27), 단위과제현황(27), CAMS 연계오류(17), 단위과제모니터링(21)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1)	
기록물분류기준표	분류체계관리	단위업무접수처리(11), 단위업무관리(14), 단위업무배포처리(12), 단위업무신청(11), 단위업무조회(15)
기준정보	준칙기준관리	준칙기준관리(2), 단위과제별기준작성(2)

관리기준표 중기능의 보존기간관리 중소기능에 속한 소기능 중 기록관 설정은 28곳, 기록원신청과 단위과제현황은 27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CAMS연계오류와 단위과제모니터링 소기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수는 이보다 작은 17곳과 21곳이었다. 단위과제현황과 CAMS연계오류는 각각 8곳의 기관이 '사용해 보긴 했으나 잘 안되어 쓰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여 업무상 필요에 비해 기능성이 낮은 기능으로 짐작된다.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는 각 연도별로 확정된 기록관리기준표 고시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21개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 중기능은 단위업무접수처리, 단위업무관리, 단위

업무배포처리, 단위업무신청, 단위업무조회와 다섯 가지 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1곳에서 15곳의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기준정보 중기능의 두 가지 소기능 준칙기준관리와 단위과제별기준 작성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2곳이었다.

6) 접근 감사추적

접근 감사추적 기능은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접근 및 활용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접근관리 중기능과 감사추적 중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접근 감사추적

중기능	중소기능	소기능
접근관리	접근관리	기록물철(16), 기록물건(14)
감사추적	사용자별 추적	기록관담당자(13), 일반사용자(13)
	기록물별 추적	기록물철(11), 기록물건(11)
	위치추적(8)	
	감사추적데이터 문서화(5)	

접근관리 중기능의 기록물철 소기능은 16곳, 기록물건 소기능은 14곳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기능 모두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포기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이 8곳이었다. 감사추적 중기능에는 네 가지 중소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인 사용자별 추적은 13곳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인 기록물별 추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11곳이었고, 사용하려고 시도하다 잘 안되어 포기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8곳이었다. 위치추적은 8곳, 감사추적데이터 문서화는 5곳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7) 검색활용

검색활용은 보유 기록의 검색을 지원하거나, 열람 제한된 기록에 대한 처리과 직원의 열람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표준RMS의 9개 중기능 중에서 가장 사용율이 높은 기능이다. 기록물건 검색 기능은 62개 응답기관 중 59개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표준RMS 도입의 이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서도 검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검색, 열람과 통계 등 3개 중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검색활용

중기능	중소기능	소기능
검색	조건별검색	기록물철(58), 기록물건(59), 기간별기록물건(41), 행위자별 기록물건(37), 기록물철분류번호(29), 기록물건등록번호(30)
	전문검색(29)	
	분류체계검색	단위과제검색(18), 단위업무검색(23)
	기관간인수대상검색	인수기록물철(10), 인수기록물건(10)
	정부간행물검색(2)	
	행정박물검색(2)	
열람	열람신청	열람신청현황(41), 기록물철(41), 기록물건(41)
	기록물열람	기록물철(42), 기록물건(42)
	열람승인(기록관)	기록물철(43), 기록물건(43)
	열람승인(처리부서)	기록물철(32), 기록물건(32)
	열람통계	기록관별(35), 처리부서별(34), 분류체계열람통계(31)
통계	생산현황	일반통계(31), 시스템별통계(31), 생산현황보고서식(29)
	보유현황	일반통계(33), 시스템별통계(33)
	폐기현황	일반통계(15), 시스템별통계(15)
	이관현황	일반통계(17), 시스템별통계(17)
	공개구분(16)	
	이용현황	검색통계(27), 접속통계(27), 열람승인처리통계(26)

검색 중기능의 첫 번째 중소기능은 조건별 검색이다. 기록물철은 58

곳, 기록물건은 59곳, 기간별기록물건은 41곳, 행위자별기록물건은 37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록물철분류번호와 기록물건등록번호는 각각 29곳과 30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검색의 경우 29곳의 기관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한 응답자는 검색엔진을 설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비고란에 부기하였다. 단위과제검색이나 단위업무검색 등 분류체계검색은 각각 18곳과 23곳이 사용 중이었다. 인수기록물철과 인수기록물건 등 기관간인수대상검색을 사용하는 곳은 10곳이었다. 정부간행물검색과 행정박물검색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2곳이었다.

열람 중기능의 사용도도 높았다. 열람신청현황, 기록물철과 기록물건 등 열람신청 중소기능은 모두 41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록물철과 기록물건 등 기록물열람 중소기능도 42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열람승인(기록관) 중소기능은 43곳이, 열람승인(처리과) 중소기능은 32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열람통계 중소기능의 기록관별은 35곳, 처리부서별은 34곳, 분류체계열람통계는 31곳이 사용하고 있었다.

통계 중기능의 생산현황 중소기능에 속한 일반통계와 시스템별통계는 31곳, 생산현황보고서식은 29곳이 사용하고 있었다. 보유현황의 일반통계와 시스템별통계 소기능은 모두 33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폐기현황의 두 소기능은 15곳이, 이관현황의 두 소기능은 17곳이 사용하고 있었다. 공개구분의 경우 16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용현황 중소기능의 검색통계와 접속통계는 27곳이, 열람승인처리통계는 26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8) 시스템관리

시스템관리는 표준RMS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이다. 시스템관리, 내부자료관리, 환경설정, 기록관현황기록물관리와 모니터링 등 6개 중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시스템관리

중기능	중소기능	소기능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51)	
	불법사용자차단(12)	
	메뉴관리(27)	
	메뉴권한 그룹관리(24)	
	다운로드 PC관리(8)	
내부자료관리	저장소관리(11)	
환경설정	코드반영	기관코드반영(25), 단위업무반영(20), 단위과제반영(14)
	기록관 환경설정	기록관설정(19), 기록관관리(17), 생산시스템관리(16), 연계관리(15)
	포맷변환서버관리	인증서관리(25), 포맷변환서버분배율(17), 파일확장자관리(11)
기록관현황	일반현황	기록관운영현황(25), 업무분장(20)
	시설장비	전산장비(14), 보존시설(14), 보존장비(14), 기록물 및 서고소독(11)
	현황보고	현황보고(10), 기록관현황 접수결과(11), 마이그레이션(5)
	공개관리(8)	
기록물관리	접근범위 관리(9)	
	처리부서관리(8)	
	조직이력관리(8)	
	전송현황	시스템 현황(7), 전송일자별 결과(7)
모니터링	접수현황	통계(7), 현황보고(9)

시스템관리 중기능의 사용자관리는 51곳이, 불법사용자차단은 12곳이, 메뉴관리는 27곳이, 메뉴권한 그룹관리는 24곳이, 다운로드 PC관리는 8곳이 사용 중이었다. 내부자료관리는 생산시스템으로부터 인수한 원문전자파일을 보관하는 ‘원문저장소’, 그리고 포맷변환 파일을 보관하는 ‘문서보존저장소’와 ‘장기보존저장소’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11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환경설정 중기능은 표준RMS를 초기세팅할 때 기초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으로 세 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반영의 기관코드반영은 25곳, 단위업무반영은 20곳, 단위과제반영은 14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록관 환경설정의 기록관설정은 19곳, 기록관관리는 17곳, 생산시스템관리는 16곳, 그리고 연계관리는 15곳이 사용 중이었다. 포맷변환서버관리의 인증서관리는 25곳, 포맷변환서버분배율은 17곳, 그리고 파일확장자관리는 11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록관현황 중기능의 경우, 세 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첫 번째인 일반현황의 기록관운영현황은 25곳, 업무분장은 20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설장비의 전산장비는 14곳, 보존시설과 보존장비는 14곳, 기록물 및 서고소독은 11곳이 사용 중이었다. 현황보고 중소기능의 현황보고는 10곳, 기록과현황 접수결과는 11곳이 사용 중이었다.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곳은 5곳이었다.

기록물관리 중기능의 공개관리는 8곳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응답자는 ‘공개재분류를 위한 일괄등록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오류가 나서 다음 패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고란에 부기해 주었다. 접근범위관리는 9곳, 처리부서이력관리와 조직이력관리는 모두 8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모니터링 중기능은 두 가지 중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전송현황의 시스템현황과 전송일자별결과는 모두 7곳이, 접수현황의 통계는 7곳, 현황보고는 9곳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9) 공개관리

공개관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그리고 나라기록 통합검색시스템과 웹 서비스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기능이다.

〈표 9〉 공개관리

중기능	중소기능
목록관리	공개목록 설정(3)
	사전공개목록설정(2)
	사전공개원문변환(2)
	제공목록선정(2)

통합정보공개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공개목록 설정 기능은 3곳이, 사전공개목록설정과 사전공개원문변환 기능은 2곳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라기록 통합검색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제공목록 선정 기능도 2곳이 사용 중이었다.

10) 종합

표준RMS의 240개 세부기능의 활용현황조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반인 31곳 이상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능²¹⁾은 26개에 그쳤다. 20곳 이상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기준을 낮추어 보아도 30개 정도였다.²²⁾ 총 240개 기능 중 1/3 이상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능은 55개(약 23%)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활용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수, 생산현황통보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평가’ 지표와 관련 있는 기능들이었다. 보존 기능의 서고관리 중기능 등 기록관의 일상적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과 대조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 21) 인수 기능의 접수처리(33), 검수처리(34), 인수현황(33), 생산현황통보(36), 생산현황통보현황(31)의 5개와 검색활용 기능의 기록물철(58), 기록물건(59) 등 20개, 그리고 시스템관리 기능의 사용자관리(51) 등.
- 22) 인수 기능의 7개, 보존 기능의 2개, 기준관리 기능의 5개, 검색활용 기능의 8개, 시스템관리 기능의 7개 기능.

한편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하나도 없는 기능이 18개, 단 한 곳만이 사용한다는 기능이 18개였고, 2곳이나 3곳만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능도 27개에 달했다. 즉, 총 240개 기능 중 1/4에 달하는 63개 기능은 3곳 이하가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청이나 공사, 공단 등 일부 특정 유형의 기록관만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혹평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활용도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동안 표준RMS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 되는 입장이 공존해 왔다. ‘불편해서 쓸 수가 없다’는 생산기관 전문요원의 입장과 ‘실제로 써보지도 않고 불만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카더라 통신이 무성해서 그렇지 잘 쓴다고 하는 곳도 꽤 있다’는 기록원의 입장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양 극단에 있는 두 입장의 중간 어디 쯤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화석화된 고가의 장비’라는 성급한 비판²³⁾을 무릅쓰게 하는 결과라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처음으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확인한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는 표준RMS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어떤 시스템도 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개발이 20%, 유지가 80%’라는 시스템 개발의 정설은 표준RMS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RMS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신체의 일부와도 같이 편리한 시스템이 될 때까지 RMS를 진화시켜야 한다. 적어도 기

23) 이소연, 「연구노트: 표준RMS 도입 및 유지 전략」, 『KARMA』 제1권, 2014, 48-53쪽.

기록관리 실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만들어야 한다. 거기 도달하려면, 우선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정련하여야 한다. 우리 법제를 준수하는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RMS 기능을 만들고, 각 기능을 편리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경험이 없는 국가기록원이나 개발자에 의존한 채 비관과 외면만 해서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ABSTRACT

A Survey on Usage of Kore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Lee, So-Yeon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current usage patterns of Kore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Kore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signed and distributed by the National Archives Korea in order to support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n email survey has been sent to 4 types of public agencie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s,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s well as city and county offices. While all agencies are included in the survey for the first three types, only two provincial districts are selected for city and county offices. Out of 101 email questionnaires sent, 65 are returned(63.73%). The results show the usage patterns of 240 functionalities aligned to 9 main functions: accession from records creators, preservation, appraisal, accession to the national archives, reference management, access and tracking, retrieval and use, system management as well as freedom of information management by public institutions.

Since its launch in 2007, the system has been distributed to 707 public agencies as of late 2014. The problem is that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evaluate the functionalities and usabilities of the system. Only grievances from those agencies implemented the system have never been ceased.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offer the levelled ground for productive discussion between the national archives and the agencies.

Key words : Kore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Standard RMS, Records Management System, RMS, accession from records creators, preservation, appraisal, accession to the national archives, reference management, access and tracking, retrieval and use, system management, freedom of information management.